



광주 광산구가 마련한 골목상권 상인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안·토론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골목상권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력

광주 광산구, 지원조례 제정·사장님 다시서기론 등 추진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광산경제백신회의’가 추진해온 ‘1% 희망대출’을 소상공인을 돕는 지역 경제모델로 소개하며 전국 확산을 요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광산구가 매출하락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 골목상권 상인을 돕기 위해 만든 민간 경제 거버넌스로, 44개 민·관·산·학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1%희망대출을 비롯한 펀딩, 우체국소상공인 광산구 브랜드관 개설, 승차구매 로컬마켓 등 지난해에만 12탄에 이르는 경제백신을 추진했다.

광산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등을 통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도·소매·유통업종이 밀집한 지구로 제한해 실제 골목상권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제외돼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됐던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및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례에서 정한 ‘골목형 상점가’는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상권으로 폭을 넓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상인조직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전통시장처럼 시설개선 및

소상공인 돕기 광산경제백신회의 44개 민·관·산·학 참여

‘1% 희망대출’ 등 12개 백신 추진

걷기운동·골목상점 이용 챌린지

‘골목상권 CPR’ 공모사업도 진행

마케팅 등 각종 공모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광산구는 ‘골목상권 만세 챌린지’도 추진한다. 코로나시대 걷기 운동을 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시민 건강과 골목상권 활력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으로 만보책 3번 걷기와 광산구 골목상점에서 7000원 이상 3회 이용하기, 워크온 걸음 수 캡처화면 및 골목상점 이용 영수증을 QR코드에 접속해 업로드 등을 할 수 있다.

광산구는 챌린지에 참여하고 만족도 조사에 응한 시민 6000명을 QR코드 업로드 순으로 선정해 기프티콘 1만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또 ‘사장님 다시 서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시 상담채널인 ‘사장님 다시서기 전담 창구’ 운영, 폐업점포에 대한 간판 철거비 지원,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계한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사장님 다시 서기론’이다.

광산구는 지난 15일 광주은행, 어룡신탁, 광주 신용보증재단,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장기화

된 경기침체를 버텨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27억여원에 달하는 긴급자금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해 별도로 보증과 담보를 할 필요가 없고, 1년간 이자 2%는 광산구가 지원한다.

이 밖에 상인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CPR’ 공모사업도 진행중이다.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CPR사업’은 응급환자를 구하는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개념으로, 침체된 상권을 생기가 돌게 한다는 ‘Change Places Refresh’의 약자다.

먹자골목 등 일정한 상권에서 영업중인 상인단체가 유동인구 증가책 등 매출 향상 사업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단체는 지원금 5%만 자부담하면 된다. 심사 대상은 상인 역량교육, 걷기광산 연계 스탬프 챌린지, 활인 릴레이 등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다.

또 올해로 3년째 진행중인 골목상권 ‘사장님 아카데미’ 수강생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실전과 다름없는 장사 교육·실습으로 매출상승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경쟁률도 높다. 지난해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과 비교 조사한 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18.5%, 방문고객은 33.7%가 늘었다.

김삼호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은 탄탄한 골목상권에서 시작된다”면서 “골목을 지키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고 있으며, 광산구가 시도하는 다양한 경제정책을 통해 지역 상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삼호 광산구청장 “행복영향평가제 도입”

“행복지표·시민행복도 조사 공공행정 지향점 만들겠다”

김삼호(사진) 광산 구청장이 전국 최초로 행복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에 참석해 ‘행복영향평가제’를 구정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민선 7기 구정 목표 정한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구체화시킨 과정과 경험 등을 발표했다.

김 구청장은 특히 데이터에 입각한 정책으로 행복의 불확실성과 추상적인 면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이 제시한 데이터 정책은 ‘행복지표’와 ‘시민행복도’ 조사다. 행복지표는 행복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 역할로 사람, 공동체, 환경 3개 대영역, 12개 소영역, 27개 항목, 100개 지표로 이뤄졌다.



광산구가 전기관과 함께 2019년 12월 개발한 데이터로, 이 지표에 근거해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설문조사한 결과로 시민행복도를 산출한 것이다.

광산구는 시민행복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행복으로 걷기 광산 ▲방범용 CCTV 설치 등 52개 정책을 지난 1월 마련했다. 김 구청장은 “광산형 시민행복 시즌2를 준비해야 한다”며 “행복영향평가제를 도입해 행복정책을 공공행정의 확실한 지향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할 때 집단(단체), 지역사회, 개인의 행복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판단자료로 쓰겠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행복영향평가 연구 영역을 마치는 대로 제도를 운용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공공행정에서 시민행복이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도록 행복영향평가 법제화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서봉동 상강골 마을 주민들

수십년 묵은 진입로개설 사업 해결

광주일보 보도에 광산구청 나서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상강골 마을 주민들의 수십년 묵은 주민 숙원사업(광주일보 2021년 3월 11일자 10면)이 해결점을 찾게 됐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뒷집만 지고 있던 광산구에서 직접 해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4일 광산구 서봉동 상강골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로 출입하는 주 진입로를 놓고 호남대학교측과 1997년부터 25년째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호남대학교가 광산캠퍼스 조성과정에 마을로 출입하는 대체도로를 개설했으나 일부 구간이 완공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방치하면서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 온 것이다. 우기철이면 미개통 구간이 흙탕물 범벅이 되고, 겨울철엔 제설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마을로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광산구는 결국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광산구 건설과 담당이 직접 호남대를 방문해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학교측을 적극 설득한 끝에 호남대 소유로 돼 있는 해당 도로의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냈다.

또 일부 완공하지 않은 40여m 구간 도로는 바로 연결 토지의 택지를 개발하는 건설사측에 협조를 요청해 미개통 구간 토지를 매입하고 완공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상강골 마을 주민들은 “25년 묵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번 민원 해결에는 광산구의회 박현석 부의장의 역할이 컸다. 박 부의장은 주민들의 민원을 광산구에 전달하고, 광산구가 적극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방치돼 왔던 서봉동 상강골 마을 진입로는 앞으로 광산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보건환경연, 토양오염 우려 지역 실태조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치구와 공동으로 관내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달부터 10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교통관련 시설 지역 등 16개 지역에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00곳에 대해 카드뮴, 납 등 중금속 8개 항목과 벤젠 등 총 23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자치구에서 오염 원인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정밀조사를 명령하고,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명령과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1개 지점에서 카드뮴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자치구에서 토양 정밀조사 실시 명령을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